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대하여

배 주 채

1. 머리말

국어학이 프라그마학파의 음운이론을 받아들여 밝혀낸 것 중 한가지는 音節末子音의 中和이다. 음절말자음의 중화는 국어음운론에서 개론적인 사실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화에 대한 皮相的인 理解에 근거한 것이었다. 중화를 명확히 규정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화이고 나머지는 왜 중화가 아닌지 확정해 놓지 않은 채 직관적으로 중화라는 용어를 써 왔던 것이다. 일례로 同音語를 어휘적 차원에서의 중화의 결과로 보거나, 문장의 重義性을 통사적인 차원에서의 중화현상으로 보는 일도 있었고, 나아가 통시음운론적으로 서로 다른 음소가 한 음소로 합쳐지는 合流(merger)를 중화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 배주채(1989: 11-3, 49-50)에서 중화를 좀더 엄격히 규정하고 이른바 음절말자음의 중화가 결코 중화가 아니라 平閉鎖音化라는 평범한 음운현상임을 논의한 바 있다. 이제 그것을 다시 풀어헤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다룰 문제는 평폐쇄음화의 內容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어떤 분절음이 어떤 분절음으로 바뀌는가 하는 변동의 方向을 살펴보겠다. 특히 聲의 평폐쇄음화는 다른 음운현상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현상들의 처리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평폐쇄음화가 일어나는 環境이 무엇인지 논의하게 된다. 이 문제는 배주채(1989)에서 음절말자음의 개념 규정을 위하여 간략하게 논의한 바 있다. 그 환경이 자음 또는 휴지

앞이 아니라 음절경계 앞이라고 했던 우리의 주장을 이제 좀더 명시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중화와 평폐쇄음화

中和는 음소분석 과정에서 생긴 개념이다. 주어진 음성을 가능한 후보 음소들 중 어떤 음소로 분석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을 때 중화라는 개념을 끌어들인다. 음소분석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對立이다. ‘물: 불: 뿔: 풀’의 대립을 통해 음절초에서 ㄱ, ㄴ, ㅁ, ㅍ이 각각 서로 다른 음소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음절말에서 ‘집: 집’과 같은 대립을 통해 ㄱ, ㄴ을 서로 다른 음소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립에 의한 음소분석은 서로 다른 位置에 있는 음성들 사이에는 적용될 수 없는 限界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음절초에 놓인 자음과 음절말에 놓인 자음은 애초부터 대립쌍을 찾을 수 없으므로 서로의 대립을 영원히 확인할 수 없는 사이이다. 音節初에서 확인된 ㄱ, ㄴ, ㅁ, ㅍ의 체계와 音節末에서 확인된 ㄱ, ㄴ의 체계를 서로 관계없는 것으로 두고 더 이상의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중화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두가지 ㄱ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같은 소리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분석이라면 음절말의 ㄴ도 음절초의 어떤 음소와 같은 소리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몇가지 이유로 음절말의 ㄴ은 음절초의 ㄴ과 같은 음소임을 인정할 수 있다(배주채 1989:47-9).¹⁾

그런데 만약 음절말의 不破音 ㄴ([p̚])이 음절초의 ㄴ, ㅁ, ㅍ 중 어느 것과 같은 소리인지 결정할 수 없다면 [p̚]는 ㄴ, ㅁ, ㅍ의 공동의 실현형으로 처리하게 된다. 음절말에서 이 세 음소가 중화되어 [p̚]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p̚]를 음절초의 ㄴ과 같은 음소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구태여 중화를 끌어들이 필요 없이진다. /ㄴ/은 음절말에서 [p̚]로 실현되고, /ㅁ, ㅍ/은 음절말에 나타날 수 없다는 分布上的 制約을 가질 뿐이다.

1) Chin-W. Kim(1979)는 Houlihan(1978)이 음절말 不破閉鎖音을 된소리로 본 데 대해 그 근거가 적절치 않음을 들어 비판하고 평음으로 본 전통적인 견해가 옳음을 논했다.

[pʰ]를 /ㅍ/으로 분석하고도 [pʰ]를 ‘ㅍ, ㅃ, ㅍ’이 중화된 결과로 보는 것은 음소분석에 基底形設定 문제를 개입시킨 결과이다. 음소분석은 어떤 形態素가 참여하고 있는지 문제삼지 않지만 기저형 설정은 그것을 문제삼아야 한다. 참여한 형태소가 여러 환경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검토하여 異形態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저형을 설정한다. {집-만} 또는 {집-만}의 음성형 [집만]이 /집만/이라는 것은 음소분석에 의한 결과인 데 반해, {집-만}의 실현형 /집만/을 {집-이}, {집-도}의 실현형 /지비/, /집또/ 등과의 비교를 통해 //집-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기저형 설정의 결과이다.²⁾



기저형 설정은 음소분석이 끝난 다음의 작업이다. 음소분석된 표면형들을 가지고 각 형태소가 가진 음운론적인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기저형 설정 작업인 것이다. [pʰ]를 /ㅍ/으로 이미 분석했다면 남은 일은 /ㅍ/이 어느 形態音素의 실현인지를 각각의 발화에서 확인하는 것뿐이다.

서로 다른 형태음소가 같은 음성으로 실현되는 것을 중화라고 부른 것은 標準生成音韻論이다. //집-만//→[집만]에서는 //ㅍ, ㅍ//이 [ㅍ]으로 중화되고,³⁾ //집-도//→[집또]에서는 //ㄷ, ㅌ//이 [ㄷ]으로 중화되며, 음라우트가 공식적인 규칙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ㅃ-이//→[배비]에서는 //아, 애//가 [애]로 중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확대된 의미의 중화는 構造主義音韻論에서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동시에 그다지 유용한 개념도 아니다.⁴⁾ 더구나 중화를 확대된

2) / /는 音素表示를 나타내는 데 한정하고 形態音素表示(기저표시)를 나타내는 데는 // //를 사용한다(배주채 1989:7 참조).

3) 구조주의 음운론에서도 Tcheu(1967)과 Akamatsu(1988:139-40)은 국어에서 비음 앞에 장애음들 중 비음만 올 수 있는 것을 비음성 자질에 의한 대립의 중화라고 보았다.

4) S.G. Kim(1982)는 표준생성 음운론적인 중화의 개념을 따르면서 중화규칙과 비중화규칙의 구별의 유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규칙은 자질 변경규칙에 속하는 形態音韻規則(형태음소를 음소로 실현시키는 규칙)과

의미로 사용하면서 //집, 집//→[집]의 경우만 특별히 ‘음절말자음의 중화’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일관성을 잃은 태도이다.

되풀이해 말하자면 음절말의 [pʰ]는 /h/으로 음소분석되며 /ɸ, ㅍ/은 음절말에 나타날 수 없다. 마치 /ㅎ/이 음절말에 나타날 수 없고 /ㅇ/이 어두에 나타날 수 없듯이.

이제 음절말자음의 중화라는 명칭 대신 다른 명칭을 쓴다면 마땅히 平閉鎖音化라고 해야 할 것이다. ㄱ, ㅋ과 같은 긴장음이 ㄱ과 같은 평음으로 바뀌고 ㅅ, ㅆ, ㅎ과 같이 폐쇄음이 아닌 분절음들이 ㄷ과 같은 폐쇄음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ㄱ, ㄷ, ㄴ 세 평폐쇄음(평음인 폐쇄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3. 평폐쇄음화의 방향

3.1. 입력이 ㅎ이 아닌 경우

19자음 중 공명음은 ㄴ, ㄹ, ㄷ, ㄹ, ㄷ, ㄹ 모두 음절말에 나타날 수 있는데 장애음은 15개 중 셋(ㄱ, ㄷ, ㅂ)만 음절말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열두 장애음이 음절말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音節構造制約을 설정할 수 있다. 표면층위에 존재하는 이 제약 때문에 //집//→[집], //집도//→[집도]와 같은 음운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形態音素의 실현을 통해, 즉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변동은 다음과 같다. (ㅎ은 잠정적으로 ㄷ으로 바뀐다고 보아 두고 §3.2에서 논의한다.)⁵¹

ㄱ	ㅋ	→	ㄱ
ㅅ	ㅆ	}	→
ㅈ	ㅊ		
ㅍ	→		
			ㅂ

다름이 없고, 비중화규칙은 자질변경규칙에 속하는 異音規則(음소를 이음으로 실현시키는 규칙)과 다름이 없으므로, 다른 곳에서 써야 할 중화라는 용어를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규칙분류를 위해 마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5) 배주채(1989:79, 81f)에서는 입력에 ㅎ도 포함했으나, 이제는 ㅅ변칙어간에서 형태음소로서의 추상음소 ㅎ을 설정하지 않는 구체음운론적인 분석에 따라 ㅎ을 빼고자 한다. ㅅ변칙어간의 기저형 설정과 형태음소 ㅎ의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金京芽(1990:79-85) 참조.

ㄷ, ㅈ, ㅉ은 형태음소의 실현으로써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들을 우연한 빈칸으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 입력에 ㄱ, ㄷ, ㅂ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ㄱ//이 /ㄱ/으로 실현되는 것도 //ㄱ, ㅋ//이 /ㄱ/으로 실현되는 것과 動機가 같기 때문이다(위의 음절구조계약). [+긴장]인 연구개음(ㄱ, ㅋ)만 [-긴장]인 연구개음으로 실현된다는 기술보다 연구개음은 [긴장] 자질의 원래 자질값에 관계없이 [-긴장]으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성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때 //ㄱ//→/ㄱ/에는 규칙이 공허하게 적용되게 된다.

이제 우연한 빈칸을 모두 채우고 규칙의 공허한 적용을 고려하여 變動樣相을 다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ㄱ	ㄱ	ㅋ	→	ㄱ
ㄷ	ㄷ	ㅌ	}	→
ㅈ	ㅈ	ㅊ		
ㅉ	ㅉ	ㅊ		
ㅂ	ㅂ	ㅍ	→	ㅂ

여기에서 ㄱ, ㄱ, ㅋ, ㄷ, ㄷ, ㅌ, ㅂ, ㅂ, ㅍ 등 폐쇄음이 입력일 때는 평음화, 즉 [-긴장]化가 일어난다고 기술할 수 있다.

摩擦音 ㅉ, ㅉ은 같은 조음위치의 평폐쇄음 ㅉ으로 바뀐다고 기술할 수 있으나,⁶⁾ 破擦音 ㅈ, ㅈ, ㅊ의 경우엔 조음위치도 구개에서 치조로

6) 고평모(1989)는 ‘ㅉ’ 등의 사말음 명사들의 기저형 말음이 ㅉ이 아니라 ㄷ이라고 하고 체언의 경우에만은 모음 앞에서 ㄷ→ㅉ이라는 규칙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 ㄷ→ㅉ이라는 규칙은 현대국어의 음운규칙 체계 안에서 무척 수상쩍은 규칙이다. 오히려 배주채(1989:20-1, 53)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체언어간말자음으로 ㄷ은 불가능하고 그 대신에 ㅉ이 가능하다는 형태음소배열규칙을 세우는 것이 나올 것이다.

강창석(1989:25-8)은 음성적 음절말자음은 [t]를 포함한 일곱이지만 음절말에서 ㄷ이 ㅉ으로 “중화”되므로 음소적 음절말자음은 ㅉ을 포함한 일곱이라고 하고 음절말에서 ㅉ이 [t]로 되는 “음성규칙”(즉 이음규칙)이 존재한다고 하고 국어 화자들이 이 [t]를 ㅉ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그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t]를 음소 /ㅉ/으로 인식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음소 /ㄷ/을 형태음소 //ㅉ//으로 인식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온당해 보인다. 또 음절말의 [t]를 ㅉ으로 음소분석하면 국어의 음절말장애음체계는 폐쇄음 들(ㄱ, ㅂ)과 마찰음 하나(ㅉ)만 가지게 되므로 ㄷ 자리와 ㅉ 자리

바뀌고 평폐쇄음화도 일어나 ㄷ이 된다고 해야 하므로 調音位置의 變動이라는 특수성이 생겨 부자연스럽다(宋喆儀 1990:30). 그런데 ㅈ 등의 파찰음의 조음위치가 음성적으로 구개인 것은 사실이지만 音韻論으로도 꼭 치조가 아닌 구개라고 할 이유는 없다. ㄷ이 음성학적으로는 치음이지만 음운론적으로는 ㅅ과 함께 치조음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치조에서 발음되는 폐쇄음이 달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치조에서 폐쇄음을 발음한다면 그것도 ㄷ에 속할 것은 틀림없다. 예를 들어 영어의 치조폐쇄음 d를 국어 화자가 ㄷ으로 인식한다. ㄴ과 ㄹ도 치조음과 구개음이 변별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치조에서 파찰음을 발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개파찰음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서북방언의 치조파찰음 ㅈ([tʃ])을 다른 방언의 화자들도 ㅈ으로 인식한다. ㄷ, ㅅ과 ㅈ이 辨別되는 것은 파찰음이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지 조음위치에 달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ㄷ, ㅅ, ㅈ의 조음위치는 치조와 구개를 포괄한 前舌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맞추어 연구개도 後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⁷⁾ 이제 장애음의 체계를 간단히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양 순 음	전 설 음	후 설 음	후 두 음
폐 쇄 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파 찰 음		ㅈ ㅉ ㅊ		
마 찰 음		ㅅ ㅆ		ㅎ

다시 정리하면 ㅈ 등의 破擦音도 ㅅ 등의 摩擦音과 함께 음절말에서 같은 조음위치(前舌)의 평폐쇄음 ㄷ으로 바뀐다.

와 ㅎ 자리에 우연한 빈칸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음절말공명음체계와 달리 음절말장애음체계가 왜 균형이 잡히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체계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7) 許維(1965:191-2, 1985:207, 211)에서 이미 이와 같이 처리한 바 있다. 한편 허웅(1985:223)에서는 파찰음과 마찰음이 전설음만 가능하므로 조음위치가질 [전설]이 잉여적이라고 하여 도표에 조음위치가 무엇인지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어 화자가 양순이나 후설의 위치에서 나는 파찰음, 마찰음을 ㅈ, ㅅ 등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국어의 파찰음, 마찰음은 [+전설]로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2. 입력이 중인 경우

3.2.1. 들어가기

남은 문제는 $ㅎ \rightarrow ㄷ$ 이다. 여기에 관련되는 $//ㅎ//$ 은 用言語幹末에 나타나는 것뿐이다. 어간말에 $//ㅎ//$ 을 가진 용언은 교체양상의 면에서 두 가지로 나뉜다. 單一基底形을 설정할 수 있는 ①($ㅎ$ 정칙어간)과 多重基底形을 설정할 수 있는 ②($ㅎ$ 변칙어간)가 그것이다.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모음어미
① $//$ 놓-	/노코/	/노오면/	/노아~와/
② $//$ 이렇-	/이러코/	_____	_____
$//$ 이러-	_____	/이러면/	_____
$//$ 이래-	_____	_____	/이래/

②의 [이렇-]은 기저형이 자음어미 앞에서 $//$ 이렇-, 매개모음어미 앞에서 $//$ 이러-, 모음어미 앞에서 $//$ 이래-이다.⁸⁾ $ㅎ \rightarrow ㄷ$ 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ㅎ//$ 뒤에 자음어미가 올 때이므로 ①, ②가 모두 이 문제에 관련된다.⁹⁾

용언어간말 $//ㅎ//$ 뒤에 올 수 있는 語尾頭음을 고려하여 $ㅎ$ 과 자음의 연결양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놓- +	{	-고	노코~눅코~(눅코)	($ㅎ+ㄱ$)
		-더라	노터라~논터라	($ㅎ+ㄷ$)
		-지	노치~논치	($ㅎ+ㄷ$)
		-세	노세~(논세)	($ㅎ+ㅅ$)
		-네	논네	($ㅎ+ㄴ$)

우선 資料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자. ‘노코~눅코, 노터라~논터라, 노치~논치’와 같은 自由變異를 주장한 것은 배주채(1989:96-8)와 유재원(1989)에서부터이다.¹⁰⁾ 형태소경제에서나 형태소내부에서나 모음 사이

8) 이와 같은 분석에 대해서는 崔明玉(1988)의 $ㅎ$ 변칙 논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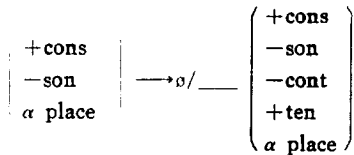
9) $//ㅎ//$ 뒤에 모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가 오면 용언어간말 $ㅎ$ 탈락이 일어난다. 이 규칙에 대해서는 배주채(1989:67-8) 참조.

10) 김차균(1981/1983:65-6)은 기저의 유기음이나 ‘ $ㅎ+평음$ ’은 ‘바테서~*반테서(밭에서), 노코~*눅코(농고)’와 같이 長子音化되지 않는 반면 기저의

에 오는 된소리 ㄱ, ㄷ, ㅂ, ㅈ과 重複子音 ㄱㄱ, ㄷㄷ, ㅂㅂ, ㄷㅈ, 그리고 유기음 ㅋ, ㆁ, ㆏, ㆑과 重複子音 ㄱㅋ, ㄷㆁ, ㅂ㆏, ㄷ㆑이 각각 音韻論의으로 等價임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金周弼(1990)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배주채(1989)에서는 근대국어 표기법에서 형태소경계에서는 물론이고¹¹⁾ 형태소내부에서도 된소리와 유기음을 단일자음 대신 중복자음으로 표기(즉 重綴表記)한 예들이 있음을 증거로 들었다(은뿔, 옥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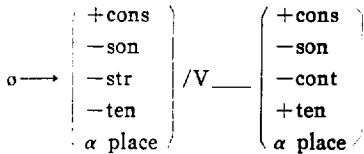
ㄱ, ㅋ 등의 긴장장애음과 ㄱㄱ, ㄱㅋ 등의 중복장애음이 음소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술하기 위한 중복장애음규칙(배주채 1989:98)을 다시 형식화할 수 있다. 자음의 조음위치에 대해 상정하는 자질체계가 §3.1에서와 같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 중복자음감축(수의적)



(ㅂ, ㅍ 앞에서 순장애음이, ㄷ, ㄸ, ㅈ, ㅉ 앞에서 전설장애음이, ㄱ, ㅋ 앞에서 후설장애음이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2) 중복자음화(수의적)



(모음과 ㄱ, ㅋ 사이에 ㄱ이, 모음과 ㄷ, ㄸ, ㅈ, ㅉ 사이에 ㄷ이, 모음과 ㅂ, ㅍ 사이에 ㅂ이 수의적으로 첨가된다.)

‘평음+ㅎ’이나 ‘평음+유기음’은 ‘박각~박각(박학), 시칼~식칼(식칼)’과 같이 장자음화되는 差異가 있다고 주장했다.

- 11) 형태소경계에서 ‘압페, 압헤’와 같이 중첩표기한 예는 어간형태를 고정표기하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긴장자음(된소리, 유기음)과 중복자음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다. 특히 어간말음이 ㅅ, ㅈ일 때의 중첩표기 ‘웃시, 뜻지’는 순전히 어간형태를 고정표기하려

‘논췌’라는 형태도 이 문제와 관련을 가진다. ㅅ과 ㄷㅅ도 ㅋ~ㄱ 등과 같이 自由變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ㄷㅅ이라는 소리를 표면형으로서 명백히 부정한 것은 배주채(1989:99)뿐이다. 배주채(1989)에서 논의되었듯이 ㅅ 앞에는 ㄷ이 올 수 없다. 만약 ㅅ 앞에서 ㄷ을 발음하려 하면 그 ㄷ은 뒤에 이어지는 같은 조음위치의 摩擦音 때문에 不破되지 못하고 반드시 外破過程을 거치게 된다.¹²⁾ 즉 [tʰs]가 아닌 [tsʰ]로 발음되게 된다. 이 [tsʰ]는 ㄷㅅ이 아니라 치조위치에서 나는 ㅅ의 된소리(서북방언의 ㅅㅅ)이다. 결국 모음 사이에서 발음되는 ㅅ은 다른 된소리, 유기음과는 달리 重複子音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ㅅ의 조음 중에 閉鎖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논췌’의 자유변이형 ‘논췌’는 인정할 수 없다.

끝으로 ‘논코’라는 형태는 Kim-Renaud(1975:124)와 배주채(1989:76-8)에서 유기음화를 有氣性的 順行同化로 해석하게 된 결정적인 자료이다. 즉 ‘농+고’는 ㅎ의 유기성이 ㄱ을 동화하여 ‘농코’가 되고 ㅎ→ㄷ을 거쳐 ‘논코’로 다시 수의적 위치동화를 겪어 ‘눅코’로, 다시 중복자음감축을 겪어 ‘노코’로 된다(논코~눅코~노코). (Kim-Renaud(1975)는 ‘눅코’에서 ㅎ을 탈락시켜 ‘노코’를 바로 끌어내거나 ㅎ→ㄷ을 거쳐 ‘논코’를 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金周弼(1990:454 주6)에서 지적된 것처럼 ‘논코’와 같이 ㅎ이 후설자음 앞에서 ㄷ으로 남아있는 발음은 자연스런 발음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하는 것을 적었을 15세기 문헌의 표기에 항상 ‘노코’쪽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논코’에 대한 反證이 되는 듯하다(金京芽 1990:88).

‘논코’가 자료에서 제외된다면 ㅎ과 ㄱ, ㄷ, ㅅ이 이어졌을 때 도출 과정에 ‘농코→논코’와 같은 ㅎ→ㄷ이 상정될 수 없다. 역행적 유기음

한 결과이다. 형태소경계에서의 중절표기를 긴장자음과 중복자음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증거로 본 견해는 金周弼(1990:457, 462-5) 참조.

- 12) 비과 ㅅ의 연결의 예인 ‘일술’도 [ipʰsʰul]이 아닌 [ipʰsʰul]로 발음되는 점이 참고된다. 김차균(1985/1988:129)에서는 pʰ, tʰ와 ㅅ 사이에 “기생음”이 삽입되어 pʰsʰ, ksʰ와 같은 파찰음이 발음된다고 한 바 있다.
- 13) 金京芽(1990:89)은 ㄷ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된소리도 유기음과 마찬가지로 폐쇄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마찰음은 평음이든 된소리이든 폐쇄과정을 가지지 못한다.

화처럼 縮約으로 보는 것이 간단하다.

3.2.2. ㅎ→ㄷ 긍정론과 마찰음화

이제 ㅎ→ㄷ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예는 ㅎ+ㅅ과 ㅎ+ㄴ이 남는다. ㅎ→ㄷ을 긍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농+네’는 ㅎ→ㄷ으로 ‘논네’가 되고 비음화를 거쳐 ‘논네’로 도출되며 ‘농+세’는 ㅎ→ㄷ으로 ‘논세’가 된 뒤에 마찰음화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뉘어 기술된다.

ㅎ+ㄴ의 경우

농+네→논네→논네

ㅎ+ㅅ의 경우

마찰음화 긍정론 : 농+세→논세

→뫼세
→논세→뫼세→노세

마찰음화 부정론 : 농+세→논세→논세→노세

ㄷ의 摩擦音化란 ㅅ, ㅆ 앞에서 ㄷ이 ㅅ으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許雄(1965:211-2, 244, 1985:228, 240)는 ㄷ+ㅅ이 ㅅㅅ(ss)으로 실현된다고 보아 ㅅ이 ㅅ 앞에서 중성이 된다고 했다. Kim-Renaud(1975:237-40)는 ㄷ이 뒤에 오는 설정자음(즉 전설자음)에 완전동화되는 설정자음동화(Coronal Assimilation) 규칙을 세워 ㄷㅅ이 ㅅㅅ으로 바뀐다고 보았다. K. Chung(1980:78)은 설정장애음이 ㅅ 앞에서 ㅅ으로 바뀌는 마찰음화(Spirantization) 규칙을 제시했다. 崔明玉(1982:147-8)은 자음동화의 하나로 K. Chung(1980)의 것과 같은 마찰음화규칙을 설정했다. 許雄(1965, 1985)와 K. Chung(1980)은 ㅎ+ㅅ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Kim-Renaud(1975:120)와 崔明玉(1982:156)은 ㅅ 앞의 ㅎ→ㄷ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농+세→논세→뫼세(/nosse/)’와 같은 과정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배주채(1989:99)에서 지적했듯이 /s/와 구별되는 /ss/라는 音素連鎖는 국어에서 인정될 수 없다. 더구나 ‘뫼세’는 /노세/(nos'e)로 실현되지 /뫼세/(nosse)로는 실현되지 않는다.¹⁴⁾

마찰음화를 설정하면서 /노세/라는 형태에 충실하게 記述을 하고 있는

14) 崔明玉(1982)에서 논의하고 있는 월성방언에서는 /ㅆ/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세/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농+소’가 ‘논소→뫼소→노소’로 도출되는 예가 소개되어 있는데(p. 156) ‘뫼소→노소’에 어떤 음운규칙이 적용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것은 김차균(1981/1983:39-40)이다. $ㅎ \rightarrow ㄷ$ 을 인정하고(p. 36) ‘ $놓+세 \rightarrow$ $논세 \rightarrow$ $논세 \rightarrow$ $놋세 \rightarrow$ $노세$ ’ 정도의 도출과정을 제시했다. 그리고 ‘ $논세 \rightarrow$ $놋세$ ’의 마찰음화를 인정하고 ‘ $놋세 \rightarrow$ $노세$ ’는 사이 중성이 될 수 없어 뒤에 오는 $쓰$ 파 축약된다는 $스$ 축약규칙을 설정했다.

이상과 같은 마찰음화 긍정론에 대해 배주채(1989:99)의 논의는 摩擦音化 否定論이라 할 수 있다. $쓰$ 앞에서 $ㄷ$ 이 탈락한다는 $ㄷ$ 탈락규칙을 설정했던 것이다. 마찰음화를 둘러싼 論議의 焦點은 ‘ $논세$ ’에서 $ㄷ$ 이 $스$ 으로 바뀌느냐 탈락하느냐에 놓인다. 어느쪽 길을 택하든 표면형은 / $노세$ /이다. 어느 한쪽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증거가 찾아지지 않는 현재로서는 음운과정을 적게 假定하는 摩擦音化 否定論을 따르고자 한다. 마찰음화라는 음운과정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가정하지 않는 마찰음화 부정론이 더 簡潔한 기술을 해 주기 때문이다.

3.2.3. $ㅎ \rightarrow ㄷ$ 부정론

$ㅎ+스$ 과 $ㅎ+ㄴ$ 에서 $ㅎ \rightarrow ㄷ$ 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예는 李丞宰(1980: 38, 49-50, 54-7)이다. 우선 $ㅎ$ 과 $스$ 이 만나면 $ㅎ+ㄱ \rightarrow ㅋ$ 에서와 같은 순행적인 유기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편의상 원문을 인용한다.

이미 中和를 논하면서 언급했듯이 / s /도 격음화를 격되[原文대로] / s^h /가 음운체계상의 빈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 $h+s$ /가 [aspirated] 자질까지는 언지 못하고 [tense]만을 획득하여 / s' /로 바뀌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假想的인 / s^h /가 無標項인 / s /로 음소화하지 않고 왜 [+tense]인 / s' /로 음소화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 s^h /가 [+tense]라는 점에서 오히려 온당한 것이다. (pp. 49-50)

$ㅎ \rightarrow ㄷ$ 부정론에서 상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ㅎ+ㄱ, ㄷ, ㅈ, ㅉ \rightarrow ㅋ, ㅌ, ㅊ, ㅊ$ (유기음화)

$ㅎ+스$ 에서의 $ㅎ \rightarrow ㄷ$ 부정론과 긍정론은 각각 $s^h \rightarrow ㅌ$ 이라는 과정과 $ㅎ \rightarrow ㄷ$ ($h \rightarrow t$)이라는 과정이 과연 音聲學的으로 자연스러운가 하는 問題點을 가진다. $ㅎ+스$ 에서 유기음화가 가능한 음운과정이라면 / s^h /가 음운론적으로 빈칸일지라도 음성적으로라도 [s^h]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ㅎ+스$ 에서 생겨난 $ㅌ$ 에 유기성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서의 $ㅎ$ 이

뒤에 오는 *s*에 유기성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긴장성만 더해준다는 뜻일 것이다. 유기성이 없고 긴장성만 있는 *ㅎ*이란 바로 *ㅎ*이다. 따라서 *ㅎ+s*이 추상적인 분절음을 포함한 *ㅎ+s*으로 바뀌고 나서 *ㅅ*으로 경음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ㅎ→ㄷ*은 아마 縮地法規則(telescoping rule)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ㅎ*이 불과화를 겪을 때 바로 *ㄷ*으로 변했다기보다는 *ㅎ*과 같은 음을 거쳐 *ㄷ*에 도달했을 것인데 지금은 그 중간과정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15세기에 이미 ‘*닐*느니라’(←*닐-느니라*)와 같은 *ㅎ→ㄷ*의 예가 발견되므로 *ㅎ→ㄷ*의 중간과정의 消失은 시대를 더 올려 잡아야 할 것이다.

또 李丞宰(1980:54-7)은 *ㅎ+l*에서 *ㅎ→ㄷ*을 부정하고 *ㅎ*이 직접 *ㄴ*으로 동화된다고 했다. *s*, *z*, *t* 등도 *ㄴ* 앞에서 직접 *ㄴ*으로 동화된다고 했다. 그리고 비음화규칙을 아래와 같이 설정했다.

$$[-\text{voc}] \rightarrow [+nasal] / \text{---} \left\{ \begin{array}{l} + \\ ++ \end{array} \right\} [+nasal]$$

*ㅎ*을 포함한 *ㄷ* 이외의 모든 자음이 형태소경계나 복합어경계를 사이에 두고 비음 앞에 오면 직접 비음화된다는 것이다.

비음화를 이와 같이 기술하는 데 대한 批判은 宋喆儀(1990:30)에서 이루어졌다. 원문을 여기에 인용한다.

그러나 국어의 자음동화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경향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어의 자음동화에는 조음방법상의 동화(비음화, 유음화)와 조음위치상의 동화(변자음화, 후부변자음화)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 성격이 다른 동화규칙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ㅎ*’은 ‘*ㄴ*’과 조음방법뿐만 아니라 조음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ㅎ*’이 ‘*ㄴ*’ 앞에서 직접 ‘*ㄴ*’으로 동화된다고 하려면 이 경우에만은 조음방법상의 동화와 조음위치상의 동화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 국어의 조음위치상의 동화에 있어서 [-grave]인 자음이 [+grave]로 동화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 그런데 ‘*ㅎ*’은 [+grave]이고 ‘*ㄴ*’은 [-grave]이므로 ‘*ㅎ*’이 ‘*ㄴ*’ 앞에서 직접 ‘*ㄴ*’으로 동화된다고 한다면 [+grave]인 자음이 [-grave]로 동화될 수도 있다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표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ㅎ’은 ‘ㄷ’으로의 중화과정을 거쳐서 ‘ㄴ’으로 동화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ㅈ, ㅉ’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grave]자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anterior]자질이 문제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ㅅ’의 경우는 ‘ㄴ’과 조음위치가 같기 때문에 사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중화와 자음동화의 전체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 ‘ㅅ’도 ‘ㄷ’으로의 중화과정을 거쳐서 ‘ㄴ’으로 동화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과도 합치되는 일이다.

ㅎ→ㄴ과 같은 동화가 두가지 면에서 국어의 자음동화가 가지는 일반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問題點을 더 지적하고자 한다. 국어의 비음화는 조음음성학적으로 ‘자음+비음’의 연결에서 피동화자음이不破音이어야 일어날 수 있다. t'n과 같이 앞자음이 外破되는 상황에서 n'n과 같은 쪽으로 비음화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t'n→n'n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 비음화인 것이다. 15세기에도 ‘잇는’[isn'an] (또는 [izn'an])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음절말에서 ㅅ>ㄷ이 일어나 ‘인는’[it'n'an]으로 바뀌자 ‘인는’[in'n'an]으로 비음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ㅅ, ㅉ, ㅈ, ㅎ이 불파화되어 ㄷ으로 바뀐 후에 ㄴ으로 비음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2.4. 정 리

이제 다시 ㅎ+ㅅ과 ㅎ+ㄴ에서의 ㅎ→ㄷ 긍정론과 부정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ㅎ→ㄷ 긍정론

ㅎ→ㄷ / _____ { ㅅ (평폐쇄음화)

ㅎ→ㄷ 부정론

ㅎ+ㄱ, ㄷ, ㅉ, ㅈ, ㅅ → ㅋ, ㅌ, ㅊ, ㅆ (유기음화)

ㅎ+ㄴ → ㄴㄴ (비음화)

두 견해의 차이는 ㅎ+ㅅ이 ㅎ+ㄱ, ㄷ, ㅉ과 함께 행동하는가 ㅎ+ㄴ과 함께 행동하는가 하는 차이이기도 하다. ㅎ→ㄷ 부정론에서는 ㄱ, ㄷ, ㅉ과 ㅅ이 모두 장애음으로 묶이므로 ㅅ이 ㄴ 쪽보다는 ㄱ, ㄷ, ㅉ 쪽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ㅎ \rightarrow ㄷ$ 긍정론에서는 $ㅎ$ 이 유기음의 짝음 가진 평음(ㄱ, ㄷ, ㅈ)과는 축약되고 그렇지 않은 자음(ㅅ, ㄴ) 앞에서는 $ㄷ$ 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더 指摘해야 할 것이 있다. $ㅎ+ㄴ$ 에서나 $ㅎ+ㅅ$ 에서나 기저에서 표면에 이르는 과정을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그러한 과정이 공시적이 아니라 通時的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농-’과 같은 $ㅎ$ 말음어간에 $ㅅ$ 이나 $ㄴ$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은 활용형이 통시적으로 굳어져 지금의 표면형을 더이상 //농-//과 같은 기저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운과정 $ㅎ+ㄴ \rightarrow ㄴ$ 과 $ㅎ+ㅅ \rightarrow ㅅ$ 의 공시성을 부정하게 되면 $ㅎ$ 말음어간은 多重基底形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농-’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농-// : ㄴ, ㅅ 앞

//농-// : 그밖의 경우

그러나 이렇게 처리하면 ‘이렇-’과 같은 $ㅎ$ 변칙어간의 기저형은 환경에 따라 넷이나 설정해야 하게 되어 기저형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問題가 생긴다.

//이렇-// : ㄴ어미, ㅅ어미 앞

//이렇-// : 그밖의 자음어미 앞

//이러-// : 대개모음어미 앞

//이래-// : 모음어미 앞

기저형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은 각각의 활용형마다 어간의 기저형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활용의 공시적인 형태음운론의 모델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이다.¹⁵⁾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큰 문제에 빠져들 여유가 없으므로 暫定的으로 $ㅎ \rightarrow ㄷ$ 이 $ㅅ \rightarrow ㄷ$ 이나 $ㅈ, ㅊ \rightarrow ㄷ$ 처럼 역사적으로 그럴듯한 음운과정인 것으로 상정하고 $ㅎ \rightarrow ㄷ$ 긍정론을 따르기로 한다.

이제 平閉鎖音化의 方向에 대한 논의를 간추리면, ㄷ쇄음, ㅌ찰음, ㅎ

15) 金星奎(1989)에서 용언어간과 어미가 연결된 활용형 각각이 통시적 변화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활용에서도 얼마든지 공시음운론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화석화된 형태가 생길 수 있음을 논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찰음 ㅅ, ㅆ은 조음위치가 같은 평폐쇄음 ㄷ으로 바뀌고 ㅎ은 ㅅ과 ㄴ 앞에서만 ㄷ으로 바뀐다.

(1) 입력이 ㅎ이 아닌 경우

ㄱ ㅋ ㆁ → ㄱ

ㄷ ㄸ ㅌ	}	→ ㄷ
ㅅ ㅆ ㅅ		
ㅅ ㅆ		

ㅂ ㅃ ㅍ → ㅂ

(2) 입력이 ㅎ인 경우

ㅎ → ㄷ / _____ { ^ㅅ_ㄴ

4. 평폐쇄음화의 환경

4.1. 두 견해

평폐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見解는 크게 두가지가 대립하고 있다. 한쪽은 ‘休止나 子音 앞’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音節境界 앞’을 주장한다. 後者는 전통적으로 ‘終聲’이 평폐쇄음으로 바뀐다고 생각했던 것(周時經 1910:21-2 등)을 계승한 것이고 前者는 전통적인 생각이 불분명한 기술이라고 하여 나온 것이다. 그 동안의 논의에서 전자가 批判받은 것은 휴지와 자음이 왜 함께 묶이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고 후자가 批判받은 것은 실제로 표면형에 부여된 음절경계와 다른 음절경계가 관여하게 된다는 점이였다. 만약 후자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전자를 따르지 않아도 되므로 휴지와 자음을 自然部類로 묶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것이다.¹⁶⁾

‘음절경계 앞’을 환경으로 보는 後者도 다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음절경계를 부여하는 과정에 文法的 情報을 관련시키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純粹히 音韻論的으로만 음절경계를 부여하는 쪽이다. 前者는 Kim & Shibatani(1976)에서, 後者는 배주채(1989:40-2)에서 구

16) 김정우(1991:329)은 휴지와 자음이 공명도가 낮다는 점을 공통으로 가진다고 볼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많은 음운현상 중 이 경우에만 휴지의 음운자질을 문제삼게 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해명은 될 수 없는 듯하다.

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음절경계 앞’을 환경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批判은 주로 前者에 대한 것이었다. 김정우(1991)에서 전자에 대해 이루어진 비판 중 가장 重要하게 생각되는 것은 문법적 정보의 介入에 대한 것이다.¹⁷⁾ 평폐쇄음화는 순수히 음운론적인 현상으로 생각되는데 그 기술에서 문법적인 경계를 音節境界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문법적인 경계가 필요해지는 것은 순전히 ‘웃안, 맛없다’ 등의 複合語 때문이다. 이들 예에서는 음운론적인 환경이 ‘모음 앞’이어서 ‘음절경계 앞’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모음 앞에서 평폐쇄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복합어 내부의 경계라는 것은 문법적인 경계로서 그것을 음절경계로 바꾸더라도 표면구조에서는 그 경계가 나타날 위치를 음운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本質的으로 문법적인 정보를 관련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듯 보인다.

그런데 배주채(1989:39-42)는 “潜在的인 休止”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이 문제를 音韻論的으로 해결하려 했다. 논의는 자음군단순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음군단순화의 환경도 평폐쇄음화와 같으므로 문제의 핵심은 같다. 편의상 논의의 일부를 引用한다.

‘넋 없다’와 ‘갸 비싸다’가 각각 ‘넋 없따’, ‘갸 비싸다’를 거쳐 표면에 이르러라는 것은 화자의 직관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넋 없다’에서 連音보다 子音群單純化가 선행해야 하는 이유는 ‘넋’이 자립형태소이므로 자립해서 홀로 쓰였을 때는 그 뒤에 휴지를 가지게 되는데 語彙形態素 앞에 놓일 때에도 자립해서 홀로 쓰였을 때처럼 그 뒤에 휴지를 가진 듯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위치에 휴지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넋#없따#/로 실현되고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넋갸따#/로 실현되므로 체언과 어휘형태소 사이에는 潛在的인 休止가 있다고 볼 수 있다. (pp. 40-1)

따라서 자음이나 잠재적인 휴지 앞에 音節境界가 부여되고 그 음절경계 앞에서 평폐쇄음화와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음절경계가 表面音節境界와 다름은 물론이다.

김정우(1991)은 이 견해에 대해 세가지 批判을 했다. 첫째, 잠재적 휴

17) 鄭承喆(1991)도 이른바 통사적 음절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지를 음운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말#업따’와 같은 경우와 ‘마덥따’와 같은 경우를 “혼용해서 수의적인 교체 현상으로” 다루고 있는데 “화맥에 따라 교체 현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p. 335) 셋째, 連音보다 평폐쇄음화(그의 술어로는 “자음 중화”)가 앞서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4.2. 잠재 휴지

이 세가지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反論을 펼 수 있다. 첫째, 잠재적 휴지는 음운론적인 요소이다. 둘째, ‘말#업따’와 ‘마덥따’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구성에서 나온 교체형으로서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셋째, 연음보다 평폐쇄음화가 앞서는 것은 ‘마덥따’가 반드시 ‘말 업따’를 거쳐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세가지를 具體化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맛} + {없-} + {-다}는 적어도 두가지로 발화될 수 있다.

- ① /말#업따/
- ② /마덥따/

①과 ②는 교체형이다. 이 교체는 화용론적인 차원에서는 조건된 교체일지 모르나 음운론적인 차원에서는 隨意的인 교체이다. 참고로 ‘잠-고, 잠-는다’를 살펴보자.

- /잠-꼬/ (잠-고)
- /잠-는다/ (잠-는다)

어간의 교체형 ‘잠-’과 ‘잠-’은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형이다. 이 교체는 어간의 기본형을 ‘잠-’으로 잡고 비음 앞에서 ‘잠-’이 ‘잠-’으로 실현된다고 기술한다. 교체형 ‘잠-’이 비음 앞에서도 원래는(즉 기저에서는) ‘잠-’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 방향으로의 설명, 즉 원래 ‘잠-’이었던 것이 경우에 따라 ‘잠-’으로 나타난다는 식의 설명은 가능하지 않다.

交替代形 ①과 ②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②만 가지고는 형태소 {맛}이 형태소 {없-}과 항상 붙어 발음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①을 참고하면 {맛}과 {없-} 사이에 휴지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②에서도 원래는 {맛}과 {없-} 사이에 휴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화용론적인 조건에 따라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게 된다. 반대방향으로의 설명은 가능하지 않다. 즉 ①에서도 원래 ②에서처럼 {맛}과 {없-} 사이에 휴지가 없었는데 표면에 휴지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보았을 때 {없-}과 {-다}의 연결에서는 왜 ‘업#따’와 같은 발화가 생기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x라는 요소를 가진 교체형 A와, 가지지 않은 교체형 B가 있을 때 x의 첨가로 B에서 A를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A의 환경과 B의 환경을 조사하여 B의 환경에서 A가 가진 x가 탈락한다고 기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과 ② 중에서 ①이 원초적이라는 이 분석은 화자의 직관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잡는다’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하는 ‘잡-는다’의 ㅂ이 음운론적인 요소이듯이 ‘마덜따’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하는 ‘말#업따’의 #도 音韻論的인 要素이다. 이 가정된 형태 ‘말#업따’를 ①과 구별하기 위해, 가정된 휴지를 潛在 休止라고 부르고 ||로 표기한다. ‘말없다’가 잠재 휴지가 표면에 나타나면 ①로, 나타나지 않으면 ②로 실현되는 것은 //잡-//의 //ㅂ//이 비음 앞에 오면 ㅂ으로, 그렇지 않으면 ㅂ으로 실현되는 것과 평행적이다.

//잡-//	→잡 (비음 앞) →잡 (그밖의 경우)
말 업따	→마덜따 (휴지가 탈락할 때) →말#업따 (휴지가 실현될 때)

잠재 휴지의 탈락과 실현은 단어경계 이상의 경계에서 음운현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적절하게 기술해 준다.

/밥 # 마니머저라/ ~ /밥마니머저라/
 /나이틀머글쑤록 # 모르능게마나진다/
 ~ /나이틀머글쑤롬모르능게마나진다/

개재하는 경계가 어떤 문법적 경계이든 그것이 표면에 휴지로 실현되지 않음만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휴지의 실현 여부와

비음화 적용 여부 두가지만 차이 나는 교체형들이 똑같은 기저구조에서 출발했을 것은 틀림없다. 도출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잠재 휴지를 가진 中間表示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밤||마니||머저라

이 잠재 휴지들이 실제 휴지로 실현되는가에 따라 음운현상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여 표면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잠재 휴지는 音韻論의인 要素이고 ‘만#업따’와 ‘마덥따’는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맛없다’가 ‘마덥따’로 실현될 때 왜 連音보다 平閉鎖音化가 앞서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마덥따’를 문제삼는 연구자들의 前提를 들춰볼 필요가 있다. 그 전제는 ‘마덥따’의 /만/이 기저형 //맛//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기저형은 모든 교체형을 조사하여 그것들을 자연스러운 음운규칙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기저형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각 교체형에 대한 適切한 導出方案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져형과 음운규칙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을 미리 결정해 놓고 다른 한쪽을 결정할 수는 없다. 두가지를 同時에 決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덥따’의 경우에도 암묵적인 도출방안은 기저형을 정할 때 이미 마련되었다. ‘없다’ 앞에서 ‘맛’을 어떻게든 ‘만’으로 바꿀 計劃이 없었다면 ‘마덥따’라는 형태는 처음부터 ‘만없다’로부터 도출해야 할 일이다. ‘없다’ 앞에서 왜 ‘맛’이 ‘만’으로 바뀌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서 ‘마덥따’의 ‘만’을 기저형 //맛//으로부터 끌어내려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마덥따’는 ‘만#업따’를 거친 형태이고 휴지 앞에서는 ‘맛’이 ‘만’으로 실현된다는 전제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저형이 //맛//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맛없다’가 왜 ‘마덥따’로 발음되지 않는지 묻는 것은 이미 설정해 놓은 전제를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전제를 미리 설정하는 矛盾을 범하는 행위이다.

‘맛없다’를 ‘마덥따’로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맛’과 ‘없다’ 사이에 놓인 潛存 休止이다. ‘맛’ 뒤에 ‘없다’가 오면 자연히 잠재 휴지가 사이에 놓이게 되고 그것이 실제 휴지로 실현되든 되지 않든 잠재 휴

지 앞에서의 ‘맞→만’은 그 전에 벌써 일어날 수밖에 없다.

4.3. 잠재 휴지와 잠재적 음절경계

잠재 휴지는 潛在的 音節境界를 생기게 한다. 잠재적 음절경계는 표면에 실제 음절경계(표면음절경계)로 實現될 可能性을 가진 존재이다. 잠재 휴지가 실제 휴지로 실현되면 잠재적 음절경계도 실제 음절경계로 실현되게 되고, 실제 휴지로 실현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면 잠재적 음절경계도 함께 사라져 실제 음절경계로 실현될 수 없게 된다. ‘잠 안 오면’이란 구성이 /잠#아노면/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잠재적 음절경계를 S로, 실제 음절경계를 \$로 나타내기로 한다.)

① 잠 안 오-면

↓잠재 휴지 부여

② 잠 || 안 || 오면

↓잠재적 음절경계 부여

③ 잠 S || 안 S || 오S면

↓잠재 휴지의 실현과 소멸

④ 잠 S # 아노S면

↓실제 음절경계의 부여

⑤ 잠 \$ # 아\$노\$면

②에서 ③이 도출될 때 잠재적 음절경계는 잠재 휴지에도 놓이고 단일 자음의 앞에도 놓인다. ‘잠’과 ‘안’ 사이, ‘안’과 ‘오’ 사이에는 잠재 휴지가 있으므로 놓인 것이고, ‘오’와 ‘면’ 사이에는 ㅁ이 단일자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놓인 것이다. ③에서 ④가 도출될 때 잠재 휴지가 실제 휴지로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잠재 휴지가 사라지면 거기에 놓였던 잠재적 음절경계도 사라진다. ‘안’과 ‘오’ 사이에 놓인 잠재적 음절경계가 없어진 것은 그 때문이다. ④에서 ⑤가 도출될 때 생기는 실제 음절경계는 잠재적 음절경계로부터 나온 것도 있고 단일자음 앞에 새로 부여된 것도 있다. ‘아’와 ‘노’ 사이의 실제 음절경계가 후자의 예이다.

이제 ‘맛없다’의 두가지 표면형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말#업따/의 도출과정

맛 없-다

↓잠재 휴지 부여

맛 || 없다

↓잠재 음절경계 부여

맛 S
|| 없S다

↓평폐쇄음화와 자음군단순화

말 S
|| 업S다

↓잠재 휴지의 실현과 소멸

말 # 업S따

↓실제 음절경계의 부여

말 \$
업\$따

(2) /마덥따/의 도출과정

맛 없-다

↓잠재 휴지 부여

맛 || 없다

↓잠재 음절경계 부여

맛 S
|| 없S다

↓평폐쇄음화와 자음군단순화

말 S
|| 업S다

↓잠재 휴지의 실현과 소멸

마덥S따

↓실제 음절경계의 부여

마 \$덥 \$따

두 도출과정이 潛在 休止의 實現과 消滅 과정에서부터 비로소 달라진다. /말#업따/와 /마덥따/의 차이는 ‘맛’과 ‘없다’ 사이의 잠재 휴지가 실제 휴지로 실현되느냐 마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평폐쇄음화는 잠재적인 음절경계 앞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단일하게 기술할 수 있다.

5. 마 무 리

이 글은 국어음운론에서 흔히 音節末子音의 中和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오던 현상을 다룬 것이다. 본론에서 논의된 것들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른바 음절말자음의 중화라는 음운현상은 中和의 概念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 용어를 엄격히 사용할 때 중화라고 하기 어렵다. 음절말이라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형태음운론적 현상의 한가지로서 平閉鎖音化라고 부를 수 있다.

(2) 평폐쇄음화되는 方向은 이렇다. 모든 장애음이 입력이 된다. 그 중 모든 긴장장애음은 같은 조음위치의 평음으로 바뀐다. 또 마찰음과 파찰음 ㅅ, ㅈ 등은 같은 조음위치의 폐쇄음인 ㄷ으로 바뀌고 마찰음 ㅎ도 ㄷ으로 바뀐다.

(3) 평폐쇄음화가 일어나는 環境은 휴지나 자음 앞이 아니고 潛在的 音節境界 앞이다. 잠재적 음절경계는 잠재 휴지에 놓이거나 단일자음 앞에 놓인다. ‘맛없다’에서 ‘닷’이 ‘만’으로 바뀌는 것은 ‘닷’ 뒤에 잠재 휴지가 있어서 그곳에 잠재적 음절경계가 놓여 평폐쇄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국어의 음절말 평폐쇄음화를 다음과 같이 形式化할 수 있다.

① 장애음의 평폐쇄음화

$$\begin{bmatrix} +\text{cons} \\ -\text{son} \end{bmatrix} \longrightarrow \begin{bmatrix} -\text{str} \\ -\text{ten} \end{bmatrix} / \text{ ______ } S$$

(잠재적 음절경계 앞에서 순장애음은 ㅂ으로, 전설장애음은 ㄷ으로, 후설장애음은 ㄱ으로 바뀐다.)

② ㅎ의 평폐쇄음화

$$\begin{bmatrix} -\text{cons} \\ -\text{son} \end{bmatrix} \longrightarrow \text{ㄷ} / \text{ ______ } \left\{ \begin{array}{l} \text{ㅅ} \\ \text{ㅈ} \end{array} \right.$$

(ㅅ이나 ㅈ 앞에서 ㅎ이 ㄷ으로 바뀐다.)

§ 3.2.3, § 3.2.4에서 지적했듯이 ㅎ의 평폐쇄음화는 잠재적인 기술

에 머무른다. 우선 장애음의 평폐쇄음화와의 이질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이고, 공식적인 음운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창석(1989) 現代國語 音韻論의 虛와 實, 國語學 19.
- 고광모(1989) 체언 끝의 변화 ㄷ>ㅅ에 대한 새로운 해석, 언어학(한국언어학회) 11.
- 金京芽(1990) 活用에서의 基底形設定과 音韻現象, 國語研究(서울대) 94.
- 金星奎(1989) 活用に 있어서의 化石形, 周時經學報 3.
- 김정우(1991) 음절말 자음중화의 실상, 『國語學的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 金周弼(1990) 國語 閉鎖音의 音聲의 特徵과 音韻 現象, 『姜信沆教授回甲紀念 國語學論文集』 太學社.
- 김차균(1981) 음절 이론과 국어의 음운 규칙, 논문집(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8:1. 김차균(1983) 『음운론의 원리』(창학사)에 재수록.
- _____ (1985) 음절구조 속에서 활음의 기능, 언어연구(한국현대언어학회) 2. 김차균(1988) 『나랏말의 소리』(太學社)에 재수록.
-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國語研究(서울대) 91.
- 宋喆儀(1990) 子音同化,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다』 東亞出版社.
- 유재원(1989) 현대 국어의 된소리와 거센소리에 대한 연구, 한글 203.
- 李丞宰(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研究(서울대) 45.
- 鄭承喆(1991) 音素連鎖와 非音韻論的 境界: 濟州島方言을 중심으로, 『國語學的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 周時經(1910) 『國語文法』 博文書館.
- 崔明玉(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出版部.
- _____ (1988)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li-, lə-, ε(jə)-, h-變則動詞를 中心으로, 語學研究 24:1.
- 許 雄(1965) 『國語音韻學(改稿新版)』 正音社.
- _____ (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 Akamatsu, Tsutomu(1988)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and the Archiphoneme in Functional Phon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 Chung, Kook(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Hanshin Publishing Company.

- Houlihan, Kathleen(1978) On neutralization in Korean stops, *Minnesota paper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of language* 5.
- Kim, Chin-W.(1979) Neutralization in Korean Revisited, 언어 4:2. Chin-W. Kim(1988) 『言語小典 2』(탑출판사)에 재수록.
- Kim, Kong-On & M. Shibatani(1976) Syllabification phenomena in Korean, *Language Research*(語學研究) 12:1.
- Kim, Soo-Gon(1982) Neutralization and Phonological Theory,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Hanshin Publishing Company.
- Kim-Renaud, Young-Key(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Tower Press.
- Tcheu, Soc-Kiou(1967) La neutralisation et le consonantisme coréen, *La Linguistique* 1.